

선재동자의 눈에 맺힌 셀럽 게이의 초상

박그림, <화랑도 · 花郎徒>

2018년 4월 6일~14일

남웅

처음 박그림 작가의 작업을 접한 것은 SNS였다. 작가와 모델 이름이 태그된 게시물에 업로드된 남자 초상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림 속 인물들은 SNS 네트워크를 이루며 ‘좋아요’를 몰고 다니며 농이든 아니든 ‘셀럽 게이’로 불리는 이들이다. 모델을 섭외하는 주요 채널 중 하나는 게이들의 페이스북, 소위 ‘게북’으로 불리는 네트워크다. 구성원들은 얼굴과 몸을 전시하고 매력을 어필함으로써 ‘좋아요’를 호소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동경, 친밀함을 표시한다.

그는 SNS에서 활동하는 게이 남성의 얼굴을 드러낸다는 점에 여타 성소수자 작가들과 차별성을 둔다.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은 공간에서 자신을 전시하는 게이남성을 밖으로 끌어낸 것은 전시가 획득한 의의일 터, <화랑도>는 미술전시의 형식을 통해 하위문화와 미술계, SNS와 대중사회를 매개한다. 반페쇄적 SNS 플로우 안에서 끝없이 점멸하는 친밀함의 교환체제를 표구하고 전시 공간에 잠시나마 한데 박아두는 형질전환은 SNS 커뮤니티 기반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다른 차원에서 재연결하는 기예이기도 하다.

작가는 개별 모델과 접촉하여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거리를 두면서 커뮤니티 문화를 전유한다. 인물그림은 대부분 SNS에 업로드된 사진을 옮긴 것으로서, 모델이 포착한 자신의 얼굴을 작가가 전치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그의 그림은 실재하는 개별 게이 남성을 직접적 대상으로 삼기보다 모델에 의해 연출된 사진을 재연출한다. 이는 얼굴 자체를 드러내기보다 저들이 어떻게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일종의 메타 재현을 수행하는 것이다. 작가는 모델 개인의 자의식보다 자의식의 인정게임에 초점을 맞추며, 고립된 공간 속에서 눈빛을 주고 응답을 갈구하는 게이커뮤니티를 비평적으로 바라본다.

나르시시즘과 유희의 무계에 보정과 연출이 가해진다. 그는 개개의 세계를 고립된 화면에 담는다. 모델들의 세계는 집단적 나르시시즘의 총합이지만, 얼굴의 아우라는 독립된 화면에 갇힌다. 화면에 인물을 가두고 SNS의 사진배열처럼 반복 전시된 얼굴들은 비단담채의 방식으로 필터링 된다. 정돈된 색감은 작가가 캐릭터에 직관적으로 선별한 소재와 패턴들로 인물 주위를 몰들이며 방출하는 자의식의 무계를 가라앉히고

저마다의 얼굴을 비슷한 톤으로 다듬는다. 모델들의 자기 표현을 재구성하는 시도에서 그가 전공한 불화 기법은 작업베이스이자 게이남성들의 자기도취에 개입하는 관점으로 작동한다. 자의식적 대상을 그리는 손은 관음보살을 그리는 작가의 손이기도 하다. 관음을 대면한 선재동자처럼, 그는 자신감 넘치는 존재를 마주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경탄과 동경만은 아닐 터,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델들을 두루 관조하며 저들의 나르시시즘과 관심의 욕망을 그대로 시선에 통과시킨다. 페이스북 셀럽게이의 얼굴을 굽어 살피거나 우러러보는 어딘가에 작가가 있다.

인기와 매력을 전시하는 이들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저들을 관조하지만 관심의 지옥으로부터 구제하기보다 친밀함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거리 두는 관계를 설정한다. 그가 아호(雅號)로 삼은 ‘정월(井月)’의 의미처럼 작가의 눈은 관음의 빛을 반사하여 속세의 얼굴들을 향한다. 그들은 자신감 넘치는 화랑이지만, 불안정하고 화면에 고립된 채 관계의 열림을 그려나가는 주체들이다.

하지만 반복적인 행위가 커뮤니티 내부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인지, 우정의 표현을 교환경제 위에 대리소유의 형태로 발현하는 것은 아닌지 분간하기는 어렵다. 그의 작업은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중에 위계를 거듭 재생산하는 의혹과 의식적인 거리두기 사이의 긴장 위에 있다. 예의 판단유예는 차후 그가 그려낼 커뮤니티의 모습을 다시금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수려한 외모에 집중된 작업은 차후 어떤 기준으로 커뮤니티 내 다양한 결의 관계를 분기시킬 것인가. 불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그림들은 퀴어 미학과 불교 도상 사이 모종의 융합과 교차 해석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관음보살과 셀럽 게이를 오가는 붓끝은 시각의 연장이자, 양단을 관조하는 내적 시선이다. 하지만 정작 그가 관조하는 자신의 모습은 제 내밀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차후 그의 작업은 어떤 의식적 과정을 거쳐 소재를 선택하고 사유할 것인지, 어떤 공정을 거쳐 비판적으로 재창안될 것인지, 과정을 주도하고 반영하는 제 내적 의식을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 지속적인 성찰을 요구할 터. 우리는 커뮤니티 안에서 커뮤니티를 관조하며 커뮤니티를 비평적으로 재구축하는 작가를 목도하고 있다.

